

KCMI

금융산업 동향 및 전망 : 금융지주회사 및 은행업

신 보 성
금융산업실 선임연구위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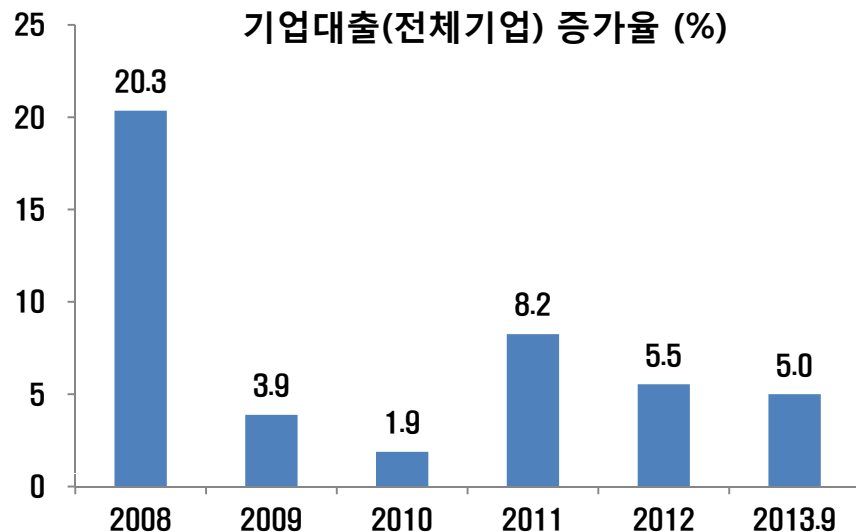


자본시장연구원
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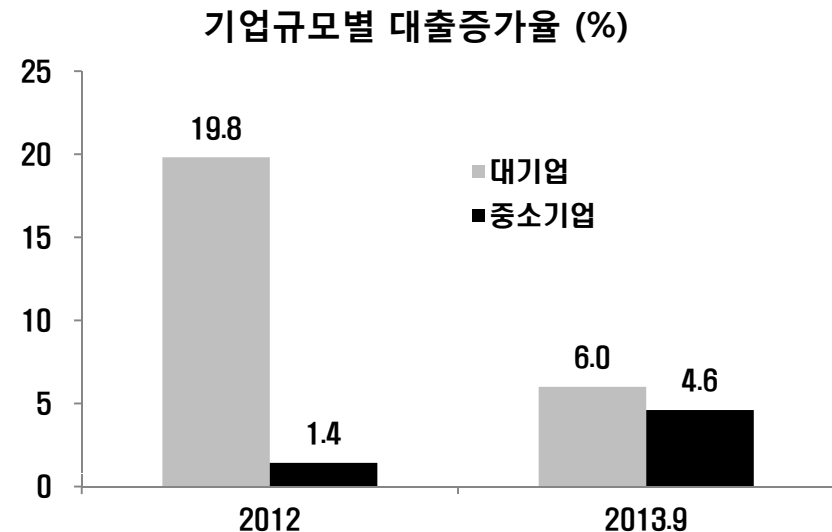
2014년 전망: 성장성 (기업대출)

■ 2014년 기업대출은 지난해 대비 성장세가 확대될 전망

- 2013년 9월 기준 전체 기업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5% 증가
 - 대기업대출은 6%, 중소기업대출은 4.6% 증가
 - 일부 대기업의 유동성 문제로 대기업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된 반면, 중소기업 지원 조치 등에 힘입어 중소기업 대출 증가세 강화
- 2014년 기업대출 성장률은 지난해 대비 소폭 신장될 전망
 - 경기회복에 따른 기업 대출수요 증가가 예상되나, 경기회복세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큰 폭의 대출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움



2013년은 전년동기 대비
자료: 금융감독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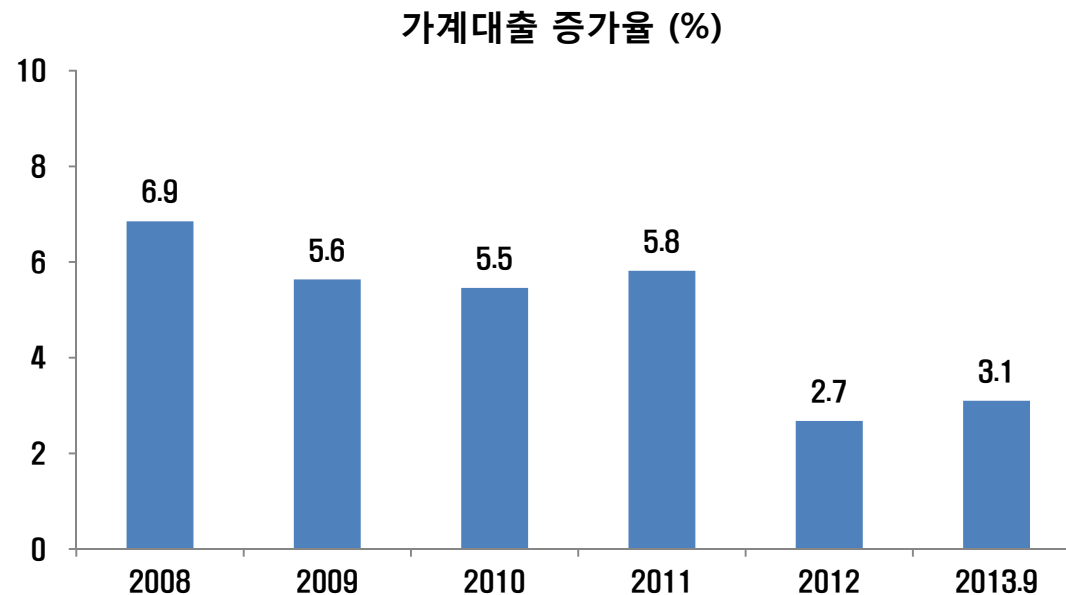


2013년은 전년동기 대비
자료: 금융감독원

2014년 전망: 성장성 (가계대출)

■ 2014년 가계대출 역시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세를 실현하기는 어려움

- 2013년 9월 기준 가계대출은 전년동기 대비 3.1% 늘어나, 직전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신장
 - 주택매매 대출수요의 침체를 전월세 대출수요가 일부 만회
- 2014년에는 경기회복세를 바탕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전망이나, 큰 폭의 신장은 기대하기 어려움
 - 가계소득 및 자산가격의 본격적인 회복세 기대 곤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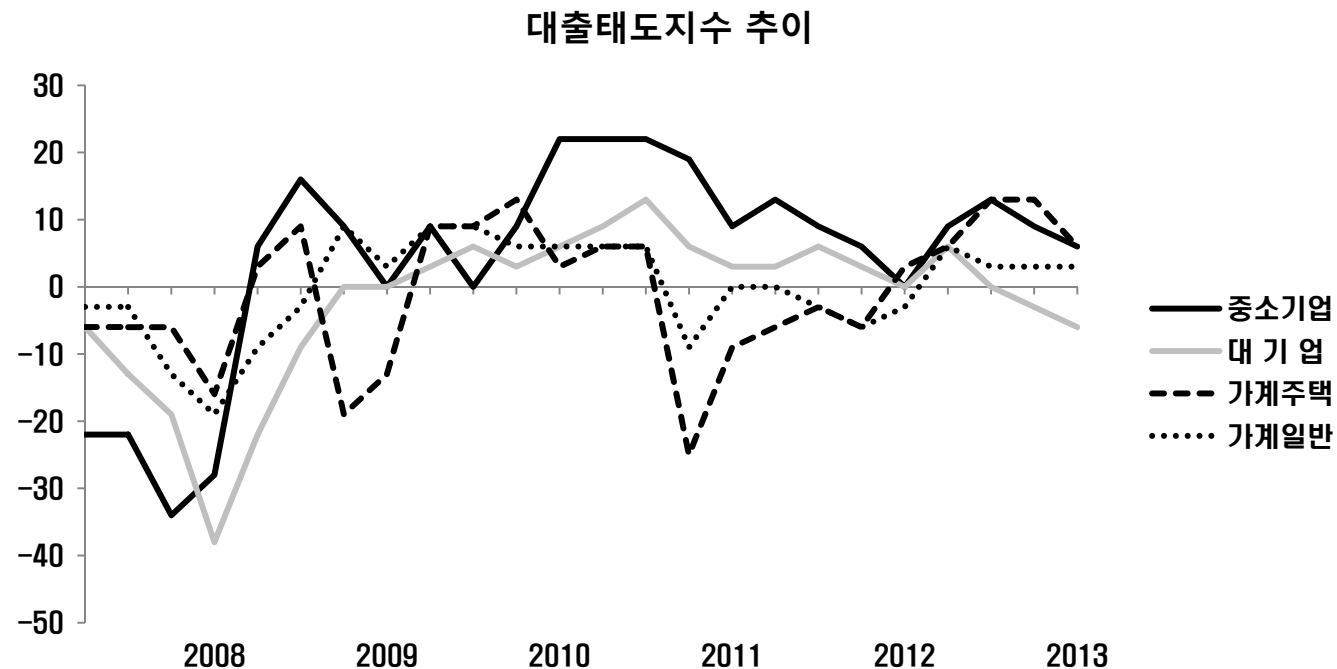


2013년은 전년동기 대비
자료: 금융감독원

2014년 전망: 성장성 (대출_종합)

■ 2014년 일반은행 총 대출은 지난해 대비 소폭 늘어날 전망

- 경기회복이 예상되나 점진적일 것으로 보이며, 본격적인 자산가격 상승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
- 대출증가율은 경제성장률 수준에서 이루어질 전망
 - 과거: 대출증가율 >>> 경제성장률
 - 자산시장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는, 대출증가율이 경제성장률을 크게 상회하기 어려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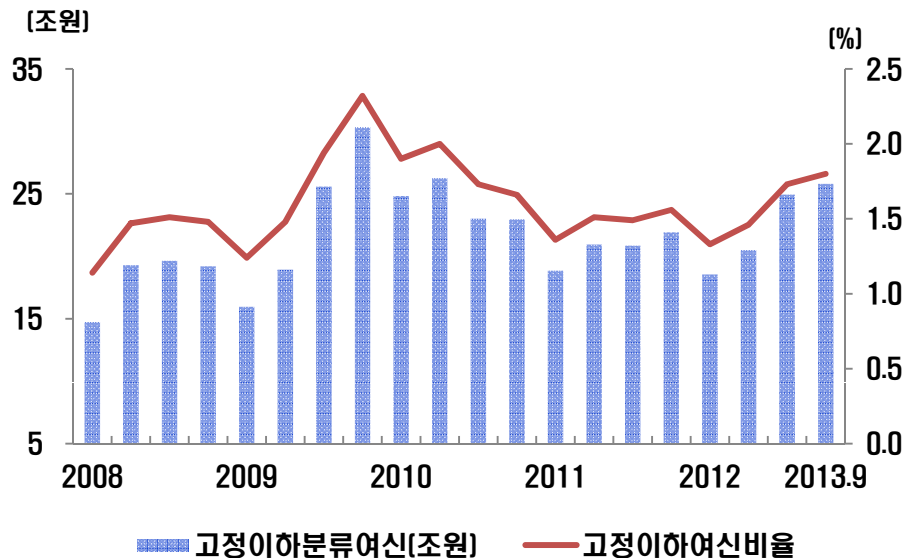


2014년 전망: 건전성 (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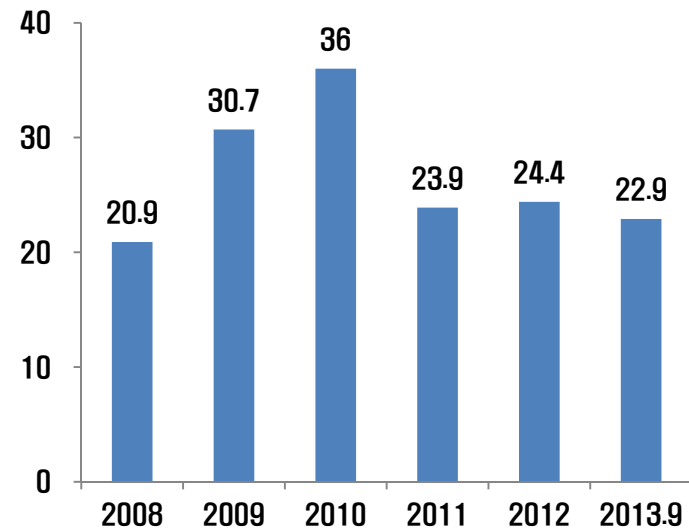
■ 은행권 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은 안정화

- 2013년에도 부실채권 규모 증가세는 지속되었으나, 하반기 들면서 증가속도가 완화된 추세
 - 신규 발생 부실채권 규모가 비교적 안정화된 데 기인

부실채권 규모 및 비율 추이



신규 부실채권 규모 (조원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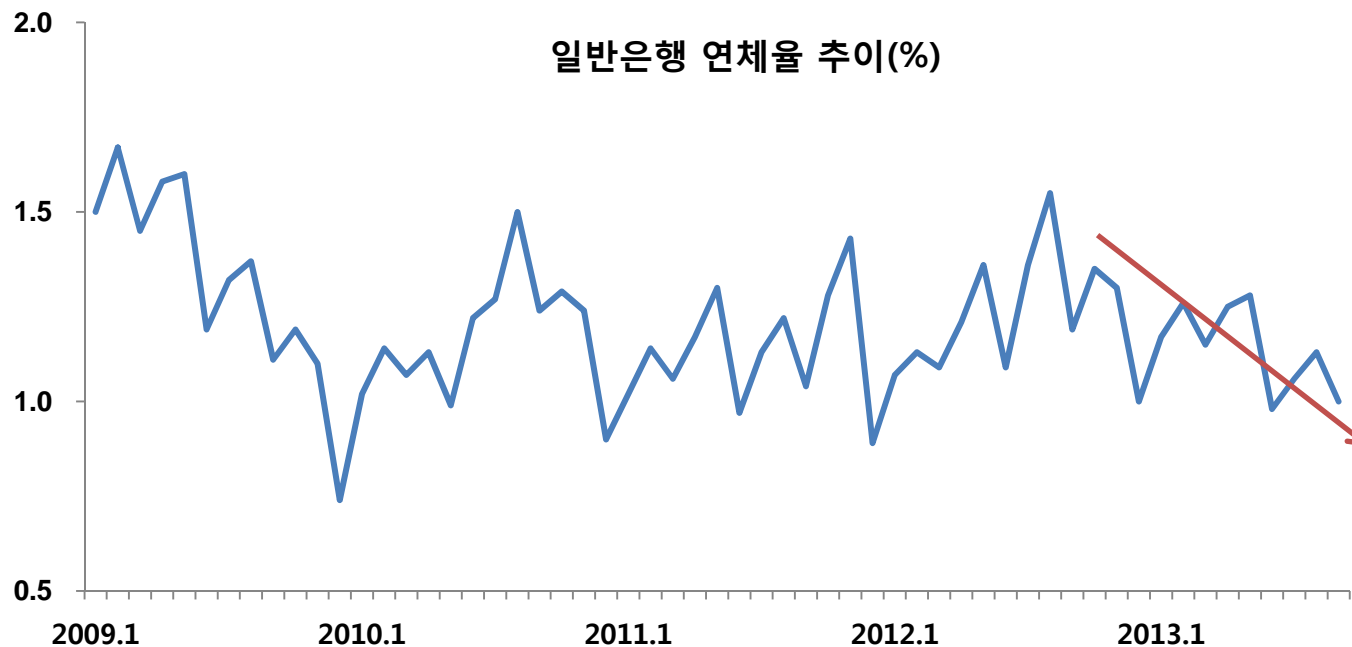


자료: 금융감독원

2014년 전망: 건전성 [2]

■ 2014년 은행 건전성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전망

- 연체율이 하락하고 있어 신규부실채권 발생 규모는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전망
- 일부 대기업의 유동성 문제 등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, 대손비용 부담은 상대적으로 완화될 전망
 - 위기징후 대기업에 대한 은행권 익스포저는 2013년에 비해 축소
 - 고정이하여신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은 122.8% 수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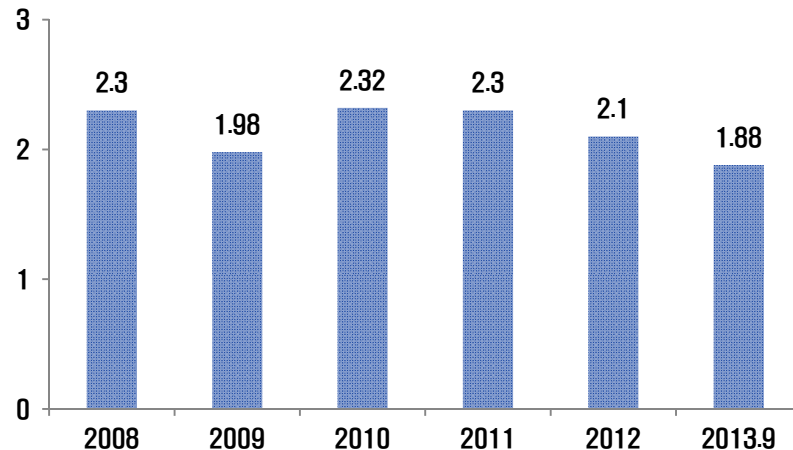
자료: 금융감독원

2014년 전망: 수익성 (예대금리차)

■ 2014년 은행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대비 소폭 확대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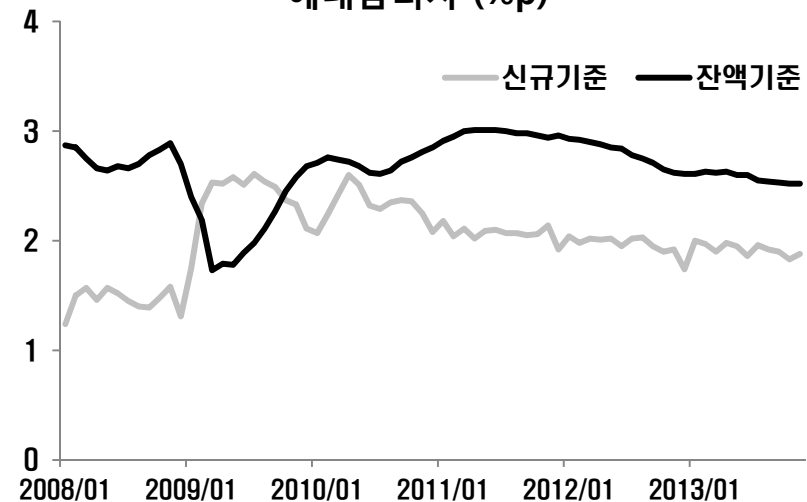
- 경기회복세 전환으로 기준금리 추가 하락 가능성은 극히 낮으며, 금리상승 가능성 일부 존재
- 시장금리 상승 시 예대금리차 확대 경향
 - 대출금리 상승속도 > 예금금리 상승속도

Net Interest Margin (%)



자료: 금융감독원

예대금리차 (%p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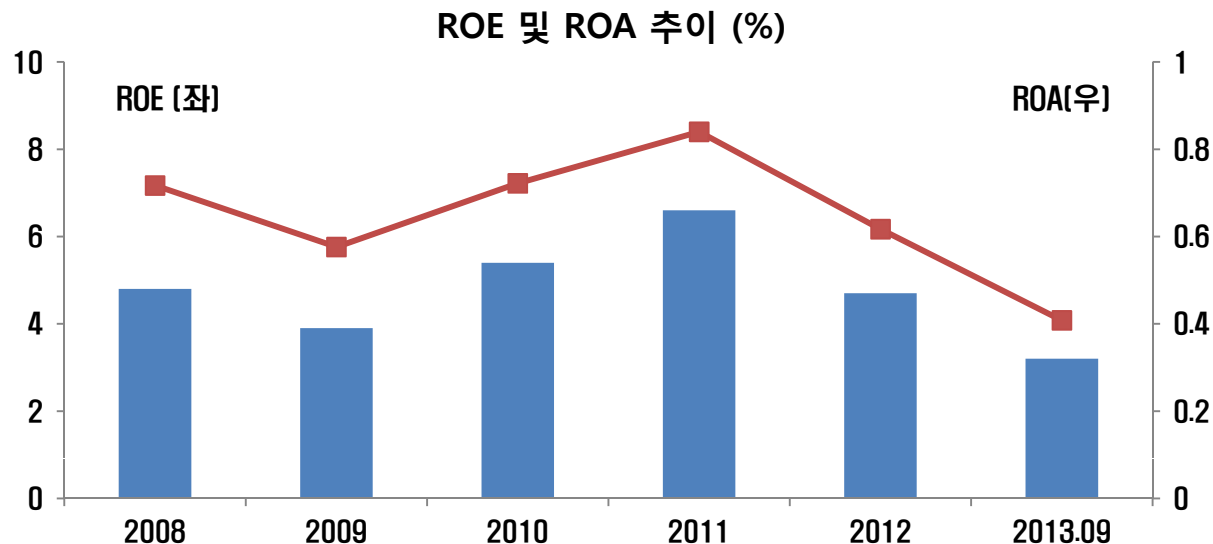


자료: 한국은행

2014년 전망: 수익성 [종합]

■ 2014년 일반은행 수익성은 지난해보다 개선될 전망

- 2013년 은행 수익성은 극히 악화되었으며, ROE와 ROA는 각각 4.08%, 0.32%에 불과
- 2014년 은행 수익성은 2013년 대비 개선될 전망
 - 대출자산 증가율 소폭 확대
 - NIM, 예대금리차 소폭 확대
 - 대손비용 축소



자료: 금융감독원



자본시장연구원
Korea Capital Market Institute

2014년 이슈 (1): 바젤Ⅲ 도입

■ 2013.12을 기점으로 바젤Ⅲ 자본규제 단계적 도입

- 보통주 자본비율 규제 신설: 자본의 질 개선
- 자본보전 완충자본비율 규제 신설: 위기 시 손실흡수 능력 강화
- 우리나라 은행의 경우 자기자본에서 보통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, 현재의 자기자본비율도 규제자본을 초과하는 수준에서 관리 (바젤Ⅲ기준 총자본비율은 14% 수준)
 - 규제도입에 따른 영향은 미미할 전망

바젤Ⅲ에 따른 최저자본규제 변화

	2013.12	2014	2015	2016	2017	2018	2019
필요자본비율 (총자본비율 + 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)	8.0	8.0	8.0	8.625	9.25	9.875	10.5
총자본비율	8.0	8.5	8.0	8.0	8.0	8.0	8.0
기본자본비율	4.5	5.5	6.0	6.0	6.0	6.0	6.0
보통주자본비율	3.5	4.0	4.5	4.5	4.5	4.5	4.5
자본보전완충자본비율	-	-	-	0.625	1.25	1.875	2.5

2014년 이슈 [2]: 금융지주회사 매트릭스 체제

■ 금융지주회사의 존립근거는 시너지 창출

- 국내 금융그룹의 경우 전략수립, 자원배분, 채널관리 등이 자회사별로 독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측면이 강함
 - 금융그룹이 갖는 시너지 효과 극히 미미

■ 금융지주회사 자회사간 임직원 겸직 확대 허용 (금융업 경쟁력 강화 방안, 2013.11)

- “개별 권역간 통합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능적 조직 운영 촉진”
- 임직원 겸직 확대 허용시, 매트릭스 체제를 통해 그룹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꾀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될 것
 - CIB (Corporate & Investment Banking): 은행의 기업금융 부문과 증권사의 투자은행 부문을 한 임원이 총괄 지휘
 - 자산관리: 은행과 증권사의 자산관리 부문의 통합 운영
- 규제완화가 의미 있는 수준으로 이루어질 경우, 금융지주회사의 효율성 제고 계기로 작용할 전망